

화순군, 원예 영세·소규모 농가지원 확대

생산비·경영비 절감 시책 발굴 적극 추진 “사각지대 없이 농업인에 혜택 가도록 최선”

화순군이 영세·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원예·과수 분야의 현대화·규모화로 대규모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소규모 농가는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영세·소규모 농가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등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서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지원했다.

◆고소득 특용·약용 작물 육성... 생산 기반 구축 지원

군은 고소득 특용·약용 작물 육성을 위해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억9400만 원을 투입, 19ha 규모의 약작 식재 비용을 지원했다.

작약은 전남생약조합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어 수확 후 판로 걱정이 없어 재배 면적이 등북·백아·이양면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2016 대비 2019년에 약 8ha 증가했다. 군은 다른 작물과 비교해 농가 소득이 높은 약작 육성에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농가 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약용작물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종자와 영농비 일부를 지원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도 5800만 원을 투입, 48ha에 이르는 약용작물 식재를 지원했다. 앞으로 식재뿐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지원해 지역별 대표 약용작물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서면 율무의 경우 약용작물 규모화, 집단체화에 성과를 내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한약초 재배농가에는 유박퇴비 구매비 3500만 원을 지원, 총 8724 포를 공급했다.



◆소규모 원예작물 농가·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화, 소규모 영세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65세 이상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터널 고추, 고구마, 호박, 땅콩, 토란을 재배하면 일정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8ha 재배에 4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소비 감소

와 함께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재배 농가에 종묘 구매, 비료, 농약 등 생산 자재 구매비 5500만 원을 지원했다. 공공기관 사무실 꽃 소비 활성화, 꽃 사주기 운동도 전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영세·소규모 농가의 생산비, 경영비가 절감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없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승철 기자

담양군, 전남 귀농산어촌 평가 ‘최우수상’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적극 소통으로 높은 유치 실적

담양군은 전라도가 실시한 ‘2020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시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올해 관심, 준비, 정착단계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을 운영하며 지난해 귀농·귀촌인 2,078명을 유치했고,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를 운영, 현장에 귀농인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했다.

또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귀농인 영농정착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이웃주민 초청 행사 등 다양

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과 시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실시된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의 지역 소멸은 당연한 문제로, 귀농귀촌정책은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상생 협력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돌아와 살고 싶은 담양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2020년 정책과제개발 워크숍 개최

곡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토론 문화 정착과 직원들의 정책개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안전하게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전략사업 프로젝트 발굴과 연계하여 주요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및 실현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곡성군 공무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팀으로 나누어 정책개발 기법을 습득하고,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 공유 등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한 지역맞춤형과제를 개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개 분야 40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나주시, ‘영산강 생태복원’ 차기 국정과제 채택 추진 대장정

5대 선도정책과제 영산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나주시가 마한사 복원에 이어 5대 선도정책과제 ‘영산강 생태복원’의 차기 국정과제 채택을 목표로 첫 공식 회의를 갖고 영산강 하굿둑 개방 프로젝트 포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산강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

한 ‘영산강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석상에는 민관공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강인규 나주시장, 공동위원장인 전승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최승준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비롯해 김익수 금

강유역환경포럼 운영위원장, 박종기·이정식 전)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배삼태 전)가톨릭농민회 전국본부 회장, 이준경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집행위원장, 정철 전)광남일보 기자, 최동진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의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영산강 생태복원은 지난 1981년 하굿둑 건설로 물길에 막힌 이후 녹조,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낳고 있는 영산강 생태 복원의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영산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등 종합 플랜을 위한 연구용역, 중앙부처·지자체·전문기관·학계·시민단체를 총망라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 차기 대선국정과제 채택 등 세부 추진과제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목재문화체험장 우수사례’ 대상

다양한 SNS채널 운영하며 운영 활성화 기여 인정

구례군은 20일 서울 코엑스 2층에서 개최된 ‘2020년 목재문화체험장 우수사례 및 체험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운영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구례군은 구례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 ‘목요일은 나무와 놀이 하는 날’, 목공 꾸러미 세트 제작 등을 추진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침체된 체험장의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으로 ‘찾아가는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관내 및 전남 동부권과 전북 남원시 등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 지원과 진로·직업 목공 체험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목공에 기능인 양성지원 기초반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비대면 목공체험 꾸러미 세트’를 제작하여 아이들 가정에 보급했다. 교육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 배포하는 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한 강사진 초빙 교육 실시, SNS 및 블로그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을 통해 구례군이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